

「임업인의 날」 지정 취지

- 숲! 임업의 희망, 임업인의 풍요로운 미래 -

- ◆ 11월 1일 「임업인의 날」 을 맞아 임업·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임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
- ◆ 산림사업 발전 유공자 정부 포상과 3대를 이어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해 온 산림명문가에게 증서를 수여하여 임업인을 예우
- ◆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'20년부터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

□ 지정 목적

- 임업·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,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
- 임업·산촌분야의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 마련

□ 추진 경위

- (19.4.23) 황주홍의원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 발의
- (19.7월~9월) 발의안 일자(5.18.)에 대한 임업단체 의견수렴
- (19.11월) 기존 법정기념일(5.18 민주화운동) 중복 등 고려 11월 1일로 대안가결
- (20.3.24)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법률 개정·공포 및 시행

□ 「11월 1일」 백일의 의미

- '95년부터 11월을 숲가꾸기 기간(전국단위 숲가꾸기 시작)으로 정하여 산림과 숲가꾸기의 중요성 홍보 및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11월 첫날에 임업인들이 모여 기념
- 산림녹화를 위해 '77~'89년까지 11월 첫째주 토요일을 “육림의 날” 로써 「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으로 정하여 기념
- '73년부터 '79년까지 매년 11월에 각 시·도별 전국산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애림사상 고취와 산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
- 아라비아 숫자 '1' 세 개를 땅(-) 위에 그리면 산(山)을 만들 수 있고, 이를 이룬 임업인에 대한 노고 상징 및 위로